전남도,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80% 지원

내달16일까지…최대 3억2천만원
지역 중소·중견 제조 기업 대상
원가절감·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전남도가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대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현장 혁신 선도를 위한 '2023년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능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 구축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중소·중견 제조 기업이다. 휴·폐업 중이거나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사업비의 50%인 최대 2억원이고, 전남도는 기업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추가로 30% '최대 1억2000만원'을 더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 16일까지 서류를 갖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전남테크노파크(061-729-2581~3)에 문의하면 된다.

스마트공장은 공장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IT) 기술로 통합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생산품질 향상, 원가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30% 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2개 사에 머물던 참가 기업 수는 2019년 이후 4년간 661개 사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모집 경쟁률도 평균 3대 1을 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고용 증가 2명, 매출증대 17.9%, 생산성 향상 29.4%, 품질 향상 52.3%, 원가 절감 29.0%, 납기 준수율 24.4% 향상 등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스마트공장 전환은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가 됐다"면서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 구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선관위원장에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취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박병태(사진) 위원을 제30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병태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임 박 위원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다음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관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인·종사자 단기 상해보험 가입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선거인과 투·개표 사무관계자를 위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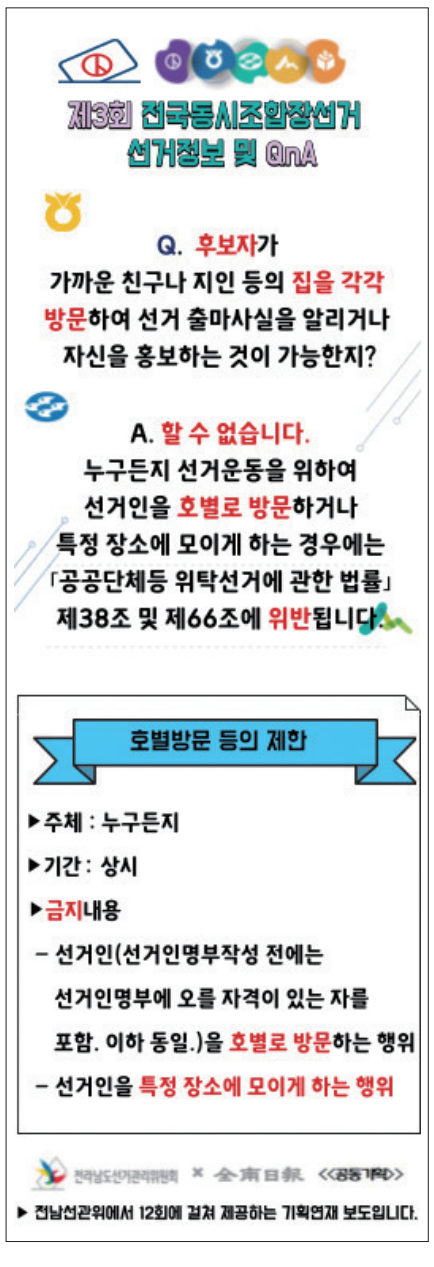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 수 규모도 39만여 명에 이른다.

더욱이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및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선거인의 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남선관위는 이날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남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거가 실시되는 130개 조합 가운데 123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보험 가입에 동참하기로 했다.

보험 대상자는 선거인 27만여 명(전체 투표자수 대비 97%)과 투·개표 사무관계자 3000여 명으로 보장기간은 3월8일 선거일과 3월3일 실시하는 순회투표일이다.순회투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3월3일 여수시, 신안군 총 18개 섬에서 순회투표를 진행한다.

최황지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광주시, 내달 2일부터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3월2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47억원 규모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4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300대, 굴착기·지게차 100대 등 총 58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이번에 추가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차량이고, 굴착기와 지게차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다.

지원 금액은 차종 또는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책정된다.

지원 대상은 4월초 선정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할 계획이다.

박상지 기자

동구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서명식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23일 동구 영상회의실에서 구제길 동구체육회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구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시행 서명식'을 갖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전남 방문의 해… 4대 국제행사·축제 안전관리 강화

전남도가 올해 전국체전 등 4대 국제행사와 전남 방문의 해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전남에선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김대중평화회의', '전국체육대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린다.

먼저 23일 강진 청자촌 일원에서 개막한 '제51회 강진청자축제' 행사장부터 곳곳을 누비며 꼼꼼하게 점검에 돌입했다.

세부 점검사항은 '축제장 관람객 동시 최대 수용 인원의 적정성·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과 대응 방안', '축제 계획과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축제장 안전관리대책', '축제장 비상 대피로 확보·질서 유지 등 교통대책',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계획' 등이다.

특히 축제 개최 1~2일 전에는 축제장 민간 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도·점검한다.

축제장 내외 시설물과 소방·전기·가스 설비 관리 상태와 보험 가입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거나 안전이 미흡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불안 요인은 축제 개최 전에 반드시 보수·보강토록해 안전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매월 대규모·고위험 지역 축제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제장 안전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최황지 기자

양향자 "국회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식"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명예 이사장 김종기), 코리아헤럴드(대표 최진영), ㈜다옴홀딩스(회장 김주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양 의원은 '세계연대'의 공동 대표로 그 동안 설립을 준비해 왔다.

세계연대는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는 'K-Birthrigh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K-Birthright는 유대인이라면 일생에 한 번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의 'Birthright Israel' 제도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전 세계 193개국 200만명의 한민족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K-Birthright' 자격을 부여한다.

홍보대사로는 올림픽 양궁 3관왕의 기보배 선수와 아티스트 팝핀 현준, 국악인 박애리 명창이 위촉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영덕 "국회도서관, 광주 남구에 500권 책 기증"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이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에 광주 남구 작은도서관 2곳을 추천해 500권의 도서 기증이 이뤄졌다.

윤 의원은 23일 광주 남구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에 참석했다.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에 따라 도서 기증 요청서에 의거해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책을 기증하는 사업이다.

앞서 윤 의원은 '효천 천년나무 6단지 늘푸른작은도서관'과 '대촌일진스위트포레 작은도서관'을 추천해 각각 250권의 도서가 전달됐다.

윤 의원은 "책 한 권이 곧 하나의 세계"라며 "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